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4월 26일**

남겨둔 제자 딛1:5-11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과 3친구 그리고 에스더 또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일을 했고 그들이 히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영웅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와 관련한 중대한 사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고 그들 나라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중한 세계복음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디를 향하여 뛰어야 할 것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이 되고 그들의 중심에 서는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이 마음이 통한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작품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지속하면 계속 더 눈이 열리므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훈련과 많은 메시지들을 통하여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면 더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결국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위하여 오늘도 강단이 내 인생의 답인 것을 발견하는 말씀 한 마디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남겨둔 제자

1) 나의 그 곳에 남겨둔 제자 한 명 - 그 냥 한 명이 아니고 성경적 전도와 하나님의 속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
2) 이미 현장을 직접 가야 하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랐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움직이고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정도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서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3) 그리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4) 그리고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라. 유대인들의 해악이 대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할례파라는 말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하지 않는 모든 교리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나야 합니다. 요1:12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다고 했고 요5:24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6) 조건은 믿음 하나 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창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7) 출12:15 유월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 하셨고 출31:14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레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8) 레7:25 화제의 기름을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질 조건은 아주 많이 있는데 왜 유독 할례만을 들고 나왔을까. 아마 자기들이 말하기가 가장 손 쉽고 가장 일상 중에 접하기 쉽다든지 하는 이유였지 어떤 영적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런데 주님은 할례만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표현된 모든 언약의 모형들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제사, 방주, 단, 언약궤, 성막,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모형들, 그리고 모든 제사들 등 언약의 모형들은 많이 있습니다.

10) 그런데 만일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희생제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창3:21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들이 희생제사를 강조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마저도 다 완성이 되고 이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11)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 완성된 약속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남겨둔 제자 한 명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그 제자를 거기에 언약으로 남겨두고 계속 후속 사역을 하며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12) 통하여 그와 함께 그 지역의 세계복음화를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이끌어 갈 내용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과 디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훈련과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에 눈을 뜨고 성경을 통하여 나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제자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13) 나의 지역에 나의 평생을 통하여 다윗 같이 1000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100팀과 100교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주신 1000 망대는 무엇인가.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RT 들은 전부 선교사들이었는데 그것도 왕을 상대로 하는 한 차원 높은 선교사들이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통한 사람인가.

14) 이 소통이 나의 성공이요 정복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요 그것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우주를 가슴에 담은 큰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15)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남겨둔 제자 한 명을 통하여 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평생의 답을 받는 귀중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의 전환점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